

논문작성과 연구윤리

(2024년도 연구윤리 교육자료)

한국회계학회 기획이사
김완용(한양사이버대학교)

I. 논문작성시 연구 윤리의 필요성

1.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2. 연구윤리 필요성의 대두

1.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행위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
- 과거 학술연구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음
 -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손화철, 2012: 97)
-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 원칙이 정립된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데이터 위조, 연구결과 날조 등과 관련된 대형 연구부정사건이 다수 발생함
 - 서구 국가들은 생명윤리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와 관련한 대응책도 모색하게 됨(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5: 11)
- 연구자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연구절차, 결과 공표 등 직접적인 윤리적 책임과 함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영향과 관련된 책임의 중요성까지 요구됨
 - 즉, 연구결과로 생산된 지식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요구됨

2. 연구윤리 필요성의 대두

- 2006년 이후 공직후보로 지명된 학자들이 논문 표절, 제자논문을 재활용해 논문 작성 의혹 제기됨
- 학위 논문 표절자의 석,박사 학위 취소 사례
- 사회지도층 인사의 연구부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구자 전체를 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음
- 국내 4년제 대학 168개를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발생건수에 대해 조사 결과, 2013년 한해에만 30건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한국연구재단, 2014: 135)
-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들은 고의보다는 실수, 무지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II. 연구부정행위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유형
2. 부당한 저자표시
3. 출판윤리
4. 인간대상 연구
5. 연구부정행위 사례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유형

광의

-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 연구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협의

-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에 반하는 위조, 변조, 표절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 FFP)행위의 핵심사례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유형

◦ 연구부정행위 VS 연구부적절행위

→ 본질적 구분이 아닌,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구분

→ 연구윤리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 : 연구부정행위

심하지 않고 그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연구부적절행위

◦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

→ 고의성, 목적성, 반복성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유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교육부 훈령 교육부훈령 제263호)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 부당한 저자 표시

저자됨(Authorship)이란?

ICMJE*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를 저자됨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

저자가 아닌 기여자(Non-author contributors)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표기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권고안

2. 부당한 저자 표시

저자의 구분

(1) 주저자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책임저자

- 역할 : 교신저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동일하여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의 권한은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2) 공동저자 :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수행 중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

- 역할 :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

(3) 교신저자 : 논문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가 교신저자

- 역할 :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순서를 결정. 공동저자들에게 최종논문을 회람.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함

2.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 저자의 유형

- 1) 선물저자(gift author) :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
- 2)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부당한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
주로 학생인 경우가 다수
- 3) 교환저자(swap author):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상대방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고 본인도 동일한 행위.
업적 부풀리기
- 4) 도용저자(theft author):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

3. 출판윤리

- 1) 자기표절 :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에 이미 기술한 적 있는 적은 범위의 내용을 새로운 논문 또는 서적에 재사용하는 것 → 본인 글이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함
- 2) 중복게재(이중게재, 중복출판) :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 즉 거의 같은 논문을 반복해서 출판하는 행위
- 3) 쪼개기 게재 : 하나의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논문을 게재해 업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
- 4) 논문 덧붙이기 : 쪼개기 출판과 반대로 기존의 논문에 일부 데이터를 새로운 연구처럼 덧붙이는 행위

3. 출판윤리

- 5) 번역출판 : 한글로 출간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영어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하나의 연구 성과를 중복해서 발표하는 중복출판 행위
- 6)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 <학문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요약 발표할 시에는 반드시 학위 논문의 요약이라는 것을 밝혀야 함
- 7) 연구보고서 : <학문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 8) 저서 : 이미 게재된 바 있는 본인의 연구를 모아서 출판할 때에는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재활용되는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출처를 밝혀야 함
- 9) 신문 등 매체 기고문 인용 : 기명기고문인 경우, 기고자 명을 명시하여 출처를 표시

4. 인간대상 연구

인간대상 연구의 유형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침습적 행위 등 물리적 개입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을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 의사소통이나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c) 설문조사 연구는 인간대상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원회)

- * 그러나, 연구 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그 연구대상자가 불특정하며, 연구대상자로부터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

5.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 위조

- 위조의 사례
 - 대학원생 A는 비만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 중이다. A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었고 최소 1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설문지를 회수하고 보니 80명 정도의 중학생만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 현재 A는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A는 본인이 직접 20개 분량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데이터로 활용하였다.
- 위조 해당 여부 판단
 - 대학원생 A는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20명의 **설문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연구데이터로 활용하였다.
 - 이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명백한 위조에 해당한다.

5.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 변조

- 변조의 사례
 - 대학원생 B는 광고의 노출 정도와 상품의 판매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B는 선행 연구를 통해 광고의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상품의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도출했고, 가설 검증을 위해 a, b, c라는 상품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광고 횟수와 상품 판매량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그런데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a와 b상품은 광고 노출 정도와 판매량에 관한 상관관계를 얻었으나, c상품은 이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B는 이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가설 검증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고민 끝에 B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c상품의 연구 데이터를 상관관계가 나오게끔 임의로 수정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 변조 해당 여부 판단
 - B는 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 데이터를 얻었으나 본인의 가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수정하였다.
 - 이는 “연구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서 변조에 해당한다

* 사례 자료 출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 표준 교재, 2015: 30-31

5.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 표절

◦ 표절의 사례

- 대학원생 C는 박사논문 작성을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는 중이다. 그는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였고, 약 2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C는 몇 개의 참고문헌이 실수로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 C는 학위논문의 제출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방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C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학위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 표절 해당 여부 판단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본인이 인용한 문헌을 적절히 표시 하지 않은** C의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Ⅲ. 「회계학연구」의 연구윤리 적용

1. 회계학연구 편집규정
2.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규정

1. 「 회계학연구 」 편집규정

제 16 조【논문 저자 표시】

- ① 「회계학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는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하여 그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회계학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 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회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공한다.

1. 「 회계학연구 」 편집규정

제 17 조【윤리규정 서약】

저자는 연구수행과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회계학회가 규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한 후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한국회계학회가 제정·공표한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신청서에 표기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는 “This manuscript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and is not under consideration by another publisher or journal, and the study in this manuscript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Guidelines set forth by the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이라는 내용을 표기한다.

2. 한국회계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학회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 그리고 제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옥미, 2010, “정서는 어떻게 동·서양 표정 이모티콘에 반영되었는가”, 「기호학 연구」 27집: 243-26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5, 「연구윤리 표준 교재」.
- 국제경영관리학회, 윤리교육자료, 2017.
- 대외경제연구원, 2015, 「KIEP 연구윤리 매뉴얼」.
- 손화철, 201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윤리이야기 episode1」, 연구윤리정보센터.
- 한국연구재단, 2014,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 한국연구재단, 2016,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 한동대학교 한동교육개발센터, 2009, 「한동인을 위한 학습윤리 가이드북」.

- 한국회계학회홈페이지(<https://www.kaa-edu.or.kr/>)